



KOREA태권도유네스코추진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36 2층
사무국장 010-7730-4723

업무협조

시행일자 : 2024. 8. 12.

수 신 : 태권도기관 및 대한태권도협회 가맹단체(수신처 참조)

발 신 :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제 목 : 대한민국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촉구를 위한 청원서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태권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모든 단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북한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 입장과 정부와 태권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청원서 참조)
4.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촉구를 위한 청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아

래

1) 일 시 : 2024년 8월 12일(월)부터 30일간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함.

2) 청원운동 대상

대한민국 국민 모든분들, 태권도 단체, 국내 태권도 지도자 및 태권도 수련생, 태권도 전공 대학생, 해외 태권도 지도자 및 수련생, 체육 관련 단체 기타 등등

3) 국민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F088B0995C86E8CE064B49691C1987F>

※ 불 임

1. 대한민국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촉구를 위한 청원서

수신처

1. 태권도단체기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아시아태권도연맹,
2. 대한태권도협회 가맹단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충청북도태권도협회,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전라남도태권도협회, 경남태권도협회, 경북태권도협회, 강원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붙임 1)

대한민국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촉구를 위한 청원서

□ 청원 취지

북한이 2024년 3월 태권도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단독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태권도는 남과 북이 함께 수련하고 전 세계 214개국에서 수련하는 대한민국 국기이며 무도 스포츠로 대한민국에서도 2018년부터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을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에서 하고 있으며 올해도 다양한 대국민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염원 국내, 국외 챌린지 캠페인 활동
2.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기관 MOU 및 범국민 서명운동
3.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컨퍼런스 및 국제학술대회

이에,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더욱 확고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관계부처의 발빠른 움직임을 통해 태권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 청원 내용

북한이 2024년 3월 태권도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단독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태권도는 남과 북이 함께 수련하고 있는 한반도의 한뿌리 무예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이치에 맞으며, 2018년 11월에 남북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은 이미 남북태권도의 유네스코 공동등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태권도를 남과 북이 유네스코에 공동으로 등재 시키고자 2021년부터 태권도 정신과 교육의 주체인 국기원이 유네스코 추진단을 결성해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색된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고, 묵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다각적으로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ITF와의 공식 채널을 통해 공동등재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었고 공동등재 방식은 '씨름' 종목의 방식과 동일하게 각 국가 간 등재

신청서 제출 후 공동등재의 합의를 얻어내기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국가유산청에 방문하여 북한의 등재 신청이 곧 이뤄지니 대한민국에서도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국내에서는 등재를 기다리는 타 유산들이 있어 태권도를 우선 신청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6조 1항에 의하면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문화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 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2016년 10월 14일에 이미 국가목록에 등재된 ‘태권도’를 우선 종목으로 선정하여 조속히 심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이며, 전 세계 214개국에서 수련하는 무도 스포츠입니다.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에 정부는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조율을 통해 북한이 신청서를 제출한 지금 즉시 대한민국에서는 태권도를 우선 선정하여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 ITF 태권도의 움직임에 따라 급변하는 상황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여러 차례 국가유산청을 방문하여 대응과 대처를 요구하였으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유산청의 입장에 따라 늦장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처지이다.

더 늦기 전에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금, 그 가치를 보존하고자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조속히 우선 신청되길 청원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F088B0995C86E8CE064B49691C1987F>

2024년 8월 11일

전)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현)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단장 최재준

